

# 탄소국가산단 토지보상 착수

### 전주시·LH, 내일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 설명회 개최

대일 무역적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재산업의 국산화를 이끌 전진기지가 될 전주 탄소국가산단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단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5일 오후 2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 향후 조성될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단지 편입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상설명회는 지난달 승인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단지 산업단

지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한 것을 의미한다.

이날 설명회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보상방법 및 일정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총 2000여 억원을 투입해 동산동과 고당동, 팔복동 일원 66만㎡(약 20만평)에 탄소소재, 최첨단 항공부품, 신성장분야 등 70여개의 기업과 10여개의 R&D(연구개발)시설, 20여개의 지원시설이 들어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

업이다.

전체 324필지인 조성부지 내 사유지는 279필지로, 사업시행자인 LH는 이날 보상설명회를 시작으로 올 연말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보상협약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과 함께 보상 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토지 소유자분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보상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나눔수룩 전주는 더욱 행복'** 전주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1일 전주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 찬란했던 전주의 가을밤, 역사 수놓다

### 전주문화재야행 성료

태풍으로 인해 한차례 연기됐던 2019 전주문화재야행이 전주한옥마을의 색다른 야간 풍경과 다양한 문화재, 색다른 공연을 함께 즐기기를 위한 관광객을 끌어 모으면서 체류형 관광객 확보를 위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전주시와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은 지난 12일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인 '2019전주문화재야행'의 두 번째 야행을 선보였다. 전주문화재야행은 지난해 문화재청이 선정한 문화재 활용사업 평가 '전국 1위, 최우수 야행'에 선정되고 지난 5월 1차 야행에 총 18만명이 다녀간데 이어 이날도 많은 야행객이 방문하면서 최우수 야행의 위엄을 과시했다.

'문화재술사의 8(八)야심작(夜心作)'을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야행은 △빛의 술사(야경, 밤에 비추보는

문화재) △이야기 술사(야사, 밤에 듣는 역사이야기) △공연 술사(야설, 밤에 감상하는 공연) △문화재 술사(야로, 밤에 걷는 거리) △그림 술사(야화, 밤에 보는 그림) △음식 술사(야식, 밤에 즐기는 음식) △흥정 술사(야사, 진상품/장시이야기) 등 7개 분야 21개 프로그램이 운영돼 축제 현장을 찾은 시민과 여행객에게 전통공연과 문화재 콘텐츠를 체험했다.

또한 올해 전주문화재야행에서는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제작돼 눈길을 끌었다. 전주대 리빙랩 기반 한문화콘텐츠 커플링 사업단 대학생과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이 협업해 최초로 제작한 전주야행 애플리케이션은 전주야행의 대흥행자인 이야기 술사 10명의 목소리를 녹음해 야행에 오지 못한 친구들 또는 귀가 눈이 되어주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정보제공뿐 아니라 취약계층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인 평을 이끌어냈다.

앞서 진행했던 전주대 HK+연구원 온다라지역인문학센터·파스텔미디어와 흥보팀이 협업해 올해 새롭게 선보인 문·화·탄(문화재활용기의 탄생), 유튜브 프로그램은 제2회 만에 2019전주문화재야행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며 문화유산을 활용한 신개념 관광 콘텐츠로 인정을 받기도 했다.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 관계자는 "전주문화재야행은 밤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문화재의 가치와 웅장함, 한국 문화재의 숭고함과 신비로움의 매력을 찾아 올곧이 전달하고, 현대적 감각에 맞춘 스토리텔링으로 문화재 활용의 획기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전주한옥마을의 야경과 다양한 문화재, 전주만의 문화경관력을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야호학교 학교 연계 특화 프로젝트 운영

### 전주시, 중앙중 2학년 학생 대상 '청소년 원탁회' 개최

전주시가 청소년들의 창의적 사고와 협동심을 키워주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 야호학교 알리미와 함께 전주시역 학교와 연계한 특화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전주시는 지난 10일 중앙중학교에서 이 학교 2학년 학생 153명을 대상으로 야호학교 학교 연계 특화 프로젝트의 일환인 '야호학교 알리미와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청소년 원탁회'를 개최했다.

야호학교는 전주시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 행복한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전주형 창의교육모델이다.

전주시는 지난 5월 전주형 창의교육인 야호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학생들이 스스로 친구들과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를 기획함으로써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연계 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화 프로젝트는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과의 사전 회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팀을 이뤄 자율 수화여행을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또, 프로젝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들의 사전 기획 회의와 실천과 같은 회의 기법 실습을 거쳐 참여자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원탁회의 참여 청소년들은 팀을 구성해 야호학교 알리미와 함께 △파실리테이션 실습 △테마식 자율 수화여행 계획 △수화여행 장소 선정 등에 대해 배우고 논의하며, 자연스럽게 자기 탐색과 또래 친구와의 소통법을 익히며 향후 진행될 테마식 체험학습을 스스로 설계 했다.

시는 이번 원탁회의를 마치고 체험학습이 종료되는 오는 11월에는 참여 청소년들의 성장을 공유하고 참여자간 응원을 통한 유대감 회복을 위해 특화 프로젝트 운영 결과 발표회도 가질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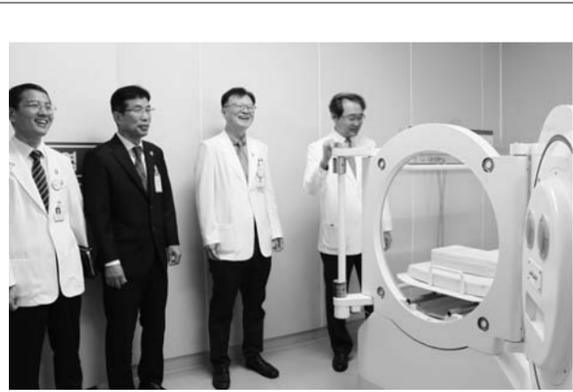
## 야호학교, 전문문화재단 협업 청소년 창작 수공예 프로젝트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야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전주시가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전주시는 지난 12일 한국전통문화전당 리빙콘텐츠IT센터에서 야호학교 청소년과 학부모, 친구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지역예술가와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진행해온 청소년 창작 수공예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프로젝트 종료식 및 전시회를 가졌다.

'청소년 창작 수공예 프로젝트'는 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한문화 소재를 활용한 손작업 교육을 통해 전주시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과 지식 습득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청소년들은 행사장을 찾은 학부모와 친구들에게 손수 만든 한지 브로치를 기념 선물로 전달하고, 작품 소감 및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송효철 기자



예수병원이 전북 최초로 응급의료센터에 1인용 고압산소치료기 2대를 도입해 지난 11일 도입 기념식을 가졌다.

## 도내 최초 고압산소치료기 도입

### 예수병원, 기념식 열고 정식 가동 들어가

예수병원이 전북 최초로 응급의료센터에 1인용 고압산소치료기 2대를 도입해 지난 11일 도입 기념식을 갖고 정식 가동에 들어갔다.

예수병원 응급의료센터의 1인용 고압산소탱크(hyperbaric Oxygen Therapy) 도입으로 화재, 산업재해로 인한 위급한 환자의 일산화탄소 치료 및 화상 치료 등에 신속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당뇨병성 족부 궤양 등 만성상처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 할 수 있게 됐으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고압산소치료기는 고압(2ATA 이상)의 압력이 가해진 챔버 안에서 100%에 가까운 산소 호흡으로 의료적 처치를 위한 고압산소치료를 하는 장비로 체내 산소량을 증가시켜 조직내 산소부족으로 유발되는 질환을 개선시킨다.

적응증 치료기능 분류 중 첫 번째

응급치료에는 ▲일산화탄소 중독 ▲감압병(잠수병) ▲가스색전증 ▲협기성세균감염증(가스괴저증) ▲시안화물중독 등 있으며 두 번째 만성상처 치료에는 ▲화상 ▲버거씨병 ▲식피술 또는 피관술 후 ▲방사선치료 후 발생한 조직괴사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이 있고 세 번째 기타 적응증으로는 돌발성 난청 치료가 있다.

김철승 병원장은 "전국 3위 규모의 넓고 쾌적한 시설을 갖춘 예수병원 포사이드 기념 응급센터에 전북 최초로 첨단 고압산소치료기를 도입해 응급의료서비스를 위한 내실을 충실하게 갖추고 있다. 앞으로 예수병원 응급센터의 환자 제일의 이념을 전통을 계승하고 많은 응급환자들이 고압산소치료기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삼천동에서 활동중인 공동체 '남양꿈드림함께육아'가 지난 11일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마을축제를 열었다.

## 공동체와 함께해요... 삼천동 마을축제

### '남양꿈드림함께육아' 공동체, 나눔행사 개최

전주시 삼천동에서 활동중인 공동체가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마을축제를 열었다.

전주시에 따르면 삼천동 남양아파트에서 공동육아를 확장과 주민간 소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남양꿈드림함께육아 공동체는 11일 200여명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꿈드림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파트 아이들이 직접 운영하는 아나바다 장터가 열려 평소 애용 안 쓰던 장난감과 생활용품 등 중고물품을 나누기 위해 판매했다. 또, 아이들을 위한 체험부스가 운영되고, 샌드위치와 어묵 등 다양한 먹거리도 준비됐다.

이와 관련 남양꿈드림함께육아 공동체는 이웃 간 교류와 공동육아를 통해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됐으며, 지난해 전주시 아파트 공동체로 선정돼 그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 공동체는 성인·아동 독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책과 연계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인근 초등학교 도서관 등과 도서관·아동센터·초등학교 책봉시활동 등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이희경 '남양꿈드림함께육아' 공동체 대표는 "아이들이 직접 중고장터 직접 운영하는 아나바다 장터가 열려 평소 애용 안 쓰던 장난감과 생활용품 등 중고물품을 나누기 위해 판매했다. 또, 아이들을 위한 체험부스가 운영되고, 샌드위치와 어묵 등 다양한 먹거리도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양꿈드림함께육아 공동체는 이웃 간 교류와 공동육아를 통해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됐으며, 지난해 전주시 아파트 공동체로 선정돼 그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 공동체는 성인·아동 독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책과 연계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인근 초등학교 도서관 등과 도서관·아동센터·초등학교 책봉시활동 등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이희경 '남양꿈드림함께육아' 공동체 대표는 "아이들이 직접 중고장터 직접 운영하는 아나바다 장터가 열려 평소 애용 안 쓰던 장난감과 생활용품 등 중고물품을 나누기 위해 판매했다. 또, 아이들을 위한 체험부스가 운영되고, 샌드위치와 어묵 등 다양한 먹거리도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양꿈드림함께육아 공동체는 이웃 간 교류와 공동육아를 통해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됐으며, 지난해 전주시 아파트 공동체로 선정돼 그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 공동체는 성인·아동 독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책과 연계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인근 초등학교 도서관 등과 도서관·아동센터·초등학교 책봉시활동 등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이희경 '남양꿈드림함께육아' 공동체 대표는 "아이들이 직접 중고장터 직접 운영하는 아나바다 장터가 열려 평소 애용 안 쓰던 장난감과 생활용품 등 중고물품을 나누기 위해 판매했다. 또, 아이들을 위한 체험부스가 운영되고, 샌드위치와 어묵 등 다양한 먹거리도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 공동체는 성인·아동 독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책과 연계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인근 초등학교 도서관 등과 도서관·아동센터·초등학교 책봉시활동 등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이희경 '남양꿈드림함께육아' 공동체 대표는 "아이들이 직접 중고장터 직접 운영하는 아나바다 장터가 열려 평소 애용 안 쓰던 장난감과 생활용품 등 중고물품을 나누기 위해 판매했다. 또, 아이들을 위한 체험부스가 운영되고, 샌드위치와 어묵 등 다양한 먹거리도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양꿈드림함께육아 공동체는 이웃 간 교류와 공동육아를 통해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됐으며, 지난해 전주시 아파트 공동체로 선정돼 그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 공동체는 성인·아동 독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책과 연계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인근 초등학교 도서관 등과 도서관·아동센터·초등학교 책봉시활동 등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이희경 '남양꿈드림함께육아' 공동체 대표는 "아이들이 직접 중고장터 직접 운영하는 아나바다 장터가 열려 평소 애용 안 쓰던 장난감과 생활용품 등 중고물품을 나누기 위해 판매했다. 또, 아이들을 위한 체험부스가 운영되고, 샌드위치와 어묵 등 다양한 먹거리도 준비됐다."고 말했다.

## 주간 음주운전 일제단속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가을 행락철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행위 개선성이 높지않을 착안해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간 음주

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골포장, 등산로 등의 주변을 권역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음주단속 현장에서 다기능목검문과 병행해 신호봉으로 차량 서행을 유도하는 등 단속에 나섰다. /남원=김기두 기자

## 일과 생활의 균형 위해 "함께 걸어요"

### 전주직장맘고충상담소 견지산서 '거북이걷기 대회'

전주시와 전주직장맘고충상담소는 지난 12일 견지산 펜백나무숲과 오송제 일원에서 남녀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의 돌봄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거북이 걷기대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와 초동학생 이하 자녀와 부모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거북이 걷기대회'는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야기처럼 더디더라도 묵묵히 한발 한발 내딛다보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북이처럼 고집적인 베페인 △장시간 근무문화 및 남성중심의 노동문화 바꾸기 △일·생활 균형 △일하는 여성의 출산 및 육아권 보호 △남성성의 돌봄 참여 확대 등 사회 저변의 인식개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때 까지 느리지만 성실히 수행하여 반드시 목적을 이루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성권 알아보는 OX퀴즈 △몸과 환경을 살리는 천연미스트 만들기 △직장 내 생리통 딱지치기 △아이가 좋아하는 스티커 타투하기 △생활 균형 인식조사 등 5가지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또한 10월부터 12월 사이 출산예정인 임신부에게는 현장에서 산모수첩을 확인 후 운송도계를 증명하는 특별 이벤트를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인 부모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카드를 들고 동료 또는 직장상사와 함께 인증샷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리면 시상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시명에 전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양육자와 아이, 그리고 출산을 앞둔 임신부가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인식전환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앞으로도 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인식개선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의회, 장애인 일자리 정책 방향 정립 위한 토론회

전주시의회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1일 전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운권(송천1·2동)·송승용(동서·서서학동, 평화·2동) 의원이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주재했다.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문가 및 관련 기관들과 논의했다.

토론회는 김운권 시의원의 사회로 우석대학교 재활학과 김동주 교수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전망' 발제와 함께 시작했다.

김 교수는 전반적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및 현재 시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현황, 선진국들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례를 소개했다. 또 전주시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회로 나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영근 전북지사는 "장애인 고용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북연구원 이종섭 연구위원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 역시 타 일자리사업과 같이 지역 중점 사업과 연계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좌장인 송승용 의원은 "시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